

전주문화재단, 국내산 전통한지 원료 확보

지역 재배 고품질 닳나무 30톤 수매... 한지 산업 생태계 강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한지진흥원이 전주 지역에서 재배된 고품질 닳나무 30톤을 수매하며 국내산 전통한지 원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전통한지 산업은 오랫동안 수입산 원료 의존도가 높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주산 닳나무 내수를 확대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9년부터는 '전주산 닳나무 수매 사업'을 본격화해 지역 농가의 협

력 체계를 강화해왔다. 전주문화재단은 올해 관내 12개 농가, 20개 필지에 닳나무를 심었으며, 2025년에는 흑석골 지역 1개 필지를 추가 확보해 총 3만1천여 그루 규모로 재배 기반을 확대했다. 이번에 수매한 30톤의 닳나무는 전년(20톤) 대비 크게 증가한 물량으로, 닳무지 과정을 거치면 약 4.5톤의 후피가 생산된다. 이는 A4 용지 기준 약 53만 장의 전통한지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한지진흥원은 이번에 확보한 전주산 후피를 전주천년한지관의 전통한지 제조에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지역 한지 및 전통한지 제작 업체에 공급해 지역 한지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전통한지의 시작은 우리 원료를 사용하는 데 있다"며 "전주산 닳나무 수매를 통해 국내산 원료 내수율을 높이고 전주한지의 품질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꿈의 무용단 in 완주' · '꿈의 극단 완주' 정기공연 성료

완주문화재단, 아이들 공연으로 감동 선사

(재)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꿈의 무용단 in 완주'와 '꿈의 극단 완주'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연이어 정기공연을 개최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오후 4시에 열린 '꿈의 무용단 in 완주' 정기공연 <공쥐야, 공쥐야 뭐하니?>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전래동화 <공쥐잡귀>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이번 무대에서 서른두 명의 단원들은 모두 서른두 명의 공쥐가 되어 삶 속에서 마주한 고민과 두려움, 희망과 용기를 움직임으로 펼쳐 보이며 1년의 성장을 완성해냈다. 단원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정규수업과 방학기 집중수업을 통해 신체인식부터 감각확장, 개인동작 창작, 앙상블과 서사 구성까지 단계적 교육과정을 경험했다. 이에 앞서 11월 22일에는 '꿈의 극단 완주' 정기공연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완주지역 초등학생 30명이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나리오 집필, 소품 제작까지 직접 참여한 만든 창작극 <학교 가는 길>, <집에 가는 길>이 무대에 올려졌다. 두 공연과 연계해, 12월 2일까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는 '꿈의 무용단 in



(재)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꿈의 무용단 in 완주'와 '꿈의 극단 완주'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연이어 정기공연을 개최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완주 & '꿈의 극단 완주' 기록전이 열렸다. 교육 과정과 연습, 창작 기록물을 통해 단원들의 1년을 입체적으로 소개한 전시다.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아이들이 1년간 쌓아올린 마음과 움직임이 무대에서 완

성되었고, 연극을 통해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과정의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해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국립군산대 음악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는 최근,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 동네반레 밴드'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학생들의 실전 공연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립대학육성사업 Insight+ 실천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음악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직접 팀을 구성해 기획·편곡·홍보·무대 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다.

공연 내용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마을, 전기톱 행진곡, 아름다운 나라, 캐롤 메들리, GOLDEN 등 다양한 곡을 학생들이 직접 편곡해 연주해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 구성 과정에서 곡 해석, 편곡 방향, 연주 동선 등 실전 공연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학생들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실기 중심 교육이 공연 기획 역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학습 경험을 제공



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나다'

남원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6일 개최

남원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중심 관악 연주단체인 남원윈드오케스트라(단장 양일주)가 오는 6일 오후 4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나다"로, 추운 겨울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클래식 음악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대에서는 제임스 반즈의 대표작 '알버타 서곡', 한국 가곡의 정수를 담은 '그리운 금강산', 그리고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디스코풍 크리스마스 캐럴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연주된다. 오케스트라는 클라리넷, 플루트, 트럼펫, 트롬본, 색소폰, 호른, 타악기 등으로 구성되어 풍성한 사운드와 조화로운 화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휘자 이소윤은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함께 연주할 수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추운 계절에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지역 음악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남원시 문화진흥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공연으로, 2017



년 창단된 남원윈드오케스트라는 올해로 8회째 정기연주회를 맞이한다. 이들은 남원예술계, 남원시립 감병중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음악의 지평 확대와 시민과의 교감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도 남원시민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정례회의 및 공동포럼이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정례회의 · 공동포럼 열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정례회의 및 공동포럼이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정례회의 및 공동포럼은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전북여성가족재단과 경기여성가족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 규모 행사로, 전국 회원기관 15개 기관에서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정례회의와 공동포럼에서는 2025년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 회장단을 선출했다.

정례회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장)은 "이번 정례회의와 공동포럼은 2025년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활동을 마무리 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2025년 회장을 맡으면서 신생 재단임에도 헌신적인 직원들과 함께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워크숍, 정례회의, 공동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례회에서 타 여성가족정책기관과 협력을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와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